

配偶者選擇・決定에 미치는 要因 및 重要도에 관한 研究

정 민 자
가 경 관 리 학 과
(1986. 9. 30 접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 선택이 권선되는 요인들과 배우자 선택시의 조건의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가 가족학의 기초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약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실제 조사뿐만아니라 이론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적 관점들을 크게 사회교환적 모델과 여과론적 모델을 중심으로 구조화시켜 보았으며, 실제 현상 파악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관련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 선택 현상에서 한국 가족의 전통성이 많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현대 배우자선택 될것은 내적 특성인 사랑, 건강, 성격, 가치, 생활력 등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Importanc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Mate Selection

Jung, Min-Ja

Dept. of Home Management

(Received September 30, 198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mate selection.

Theories of mate selection are explained two viewpoints: social exchange model and filter model.

The data, collected from 275 the married living Ulsan, is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distribution and X^2 -test.

The Major findings as follows;

1) General factors correlated mate selection;

(1) The types of mate selection are love marriage(40.7%), arranged match(25.8%) and love-arranged match(33.5%)

(2) The periods of decision making for mate selection are 6months 1year(31.7%) and within 3 months(24.9%) The period of engagement is within 3 months(49.6%).

(3) The horoscopic data is less important today. But females are more interesting in it than male significantly.

(4) The discrepancy in age is 3-4year.

(5) The ratio of premarital sex experience with her(his) partner is 23.6%.

2) Inner factors correlated mate selection:

- (1) The married were supported by parents and friends on matc selection and decision making.
- (2) A favorable impression and attraction influences upon mate selection. Especially personally attraction and value similarity is important.
- (3) Love(affection) and sexuality is necessary, but premarital sex needs not to marry.
- (4) Generally they are openhearted meeting their partners.

3) The importance of mate selection conditions was ordered. The sequences as follows:

- (1) health, (2) personality, (3) love, (4) living ability, (5) value orientation, (6) a bright future, (7) virginity, (8) growth environment, (9) occupation, (10) education level, (11) approval of parents

4) Subjects offered their opinions to young pople. Their opinions as follows:

- (1) personality, (2) humanity, (3) love, (4) health, (5) living ability, (6) growth environment (7) a bright future must be considered well.

Through this study, I can result that the phenomenon of mate selection in changing Korean family has become individualistic. In morden matc selection, internal traits(love, personality, health, value, living ability etc.) is important especially.

I. 문제의 제기

대부분 인간에게 있어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결혼을 통하여 方位家族에서 生殖家族으로 移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役割과 權利 義務를 부여받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결혼이란 두 男女의 個人的 關係나 私的 契約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法이나 社會的 慣習등의 公的인 認許를 받아야 함⁽¹⁾으로 결혼에 관련된 요인들은 복잡적이다. 따라서 結婚의 必須段階인 配偶者 選擇過程 및 決定 또한 쉽지 않다. 수많은 실혼이 행해서 성공하기도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잘 만나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특히 개인의 인식에서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열망하고 있는 結婚의 成功은 대체로 配偶者 選擇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結婚을 성립시키고 家族形成의 시발점으로 配偶者 選擇은 個人뿐만 아니라 家族과 社會의 立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동기가로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사회적 지위까지 결정하는 반면에, 가족과 사회에서는 각기 추구할 결혼하는 이는 양쪽 가족의 지위, 관계

선, 영향력을 설정하기도 한다.⁽³⁾ 이러한 配偶者 選擇의 범위나 동제는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個人을 기준으로 하는 社會는 애경, 시간, 경제적 메릭 등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親族中心社會는 가족의 기능 및 유내를 거절되 보강하고 보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통제되고 결정되었다.⁽⁴⁾ 傳統的인 한국가족은 결혼이 개인의 행복과 욕구충족보다는 가문의 영속과 번영을 위해 양쪽 가족의 결핍수단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配偶者 選擇에서 개인은 배제되고, 양가족의 대표자인 祖父나 父가 婚主로서 配偶者를 결정하였다. 대다수 什媒婚의 형태를 취하고 결혼 당시자들은 結婚의 答禮가 되어 타는 진해를 피할 수 없었다.⁽⁵⁾ 그러나 사회, 人格의 結合 신뢰 애정등을 토대로한 配偶者 選擇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지구적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었으며, 결혼에 관련된 규범 및 행동에 대한 社會的 公的 機能이 감소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면에 따른 配偶者 選擇에 더 많은 기준을 두게 되었다.⁽⁶⁾ 그럼으로써 애경과 사랑, 인성(성격) 등을 바탕으로 한 님니코제 즉 配偶者 選擇 過程은

(1) 이도계, 가족과사회, (서울, 선명문화사, 1979), p.111.
 (2) Boob and Margalet Blood, Marriag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p.92.
 (3) 윌리엄구드(최홍기역), 가족과사회, (서울, 집성문화출판, 1982), pp.54-55.
 (4) Bert N. Adams, The Family, (New York,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81), pp.227-230.
 (5) 이피규,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인지사, 1978), pp.83-96.
 (6) 강은숙, 시운시와 세주시의 머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81, p.5.

기구나 거처가 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가고 있다.⁽⁷⁾ 그런데 가족의 기능 및 정내의 변화,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애정, 사랑, 인격(성격) 등은 바탕으로 한 결합을 配偶者 選擇의 理想으로 받아들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우자를 선택 결정하려 할 때는 상대방의 경제력, 지위, 직업 등을 假位順位上 우위에 두고, 부모의 결정에 합의하는 경향을 한층더 높인 것은 "조각"의 배우자에 흥미를 갖는 편이다.⁽⁸⁾ 우리 個人主義를 수용하고 있는 현대 가족이 配偶者 選擇에서 개인 특성과 주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유교분위권의 뿌리가 깊었던 탓에, 배우자 선택에 대한 관념과 행동이 나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 연구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家族의 結婚觀, 家意識, 家族觀, 研究에서 配偶者 選擇에 관련된 意識을 논의하고 있다. 研究 對象이 비혼자, 여성,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配偶者 選擇에 관련된 諸要因과 現象을 실질적으로 논증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다. 또한 配偶者 選擇現象에 관한 體系的 研究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결혼을 성립시키는 전체 과정으로서 配偶者 選擇 그 자체를 단계로 제기하여 보고, 現代의 配偶者 選擇 現象을 기존의 문헌상으로 諸要因과 배우자선택 요건의 중요도 대에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부제를 설정하였다.

- 문제 1). 배우자선택·결정에 관련된 일반요인은 어떠한가?
- 문제 2). 배우자선택·결정에 관련된 내적 요인은 어떠한가?
- 문제 3). 배우자선택시에 고려되는 요인들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 문제 4). 배우자선택시의 건설적 요인과 의견은 어떠한가?

II. 配偶者 選擇 理論 考察

配偶者 選擇의 문제는 家族研究 중에 가장 흥미 있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토론되어야 할 주제중의 하나이다. 配偶者 選擇이 사회마다 역사마다 규격 및 방법이 다르고, 인간의 경계 영역이 개입되므로 과학적으로 명제화하기가 쉽지 않다.⁽⁹⁾ 현대 한국의 配偶者 選擇 現象에 관하여서는 실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한국적 모델을 구성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한국 가족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기 전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론 모델 및 관점을 조망해 봄으로써 앞으로 연구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자들마다 配偶者 選擇 現象을 理論化하는 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Robert Winch의 보상유구이론, Charles Bolton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능한 관계 발달이론, Alan Keckhoft와 Keith Davis의 여파모델, Murstein의 SVR 모델, Hill과 Katz의 근접성 모델,⁽¹⁰⁾ Adams의 배우자선택의성모델,⁽¹¹⁾ Blood의 양립성 주장,⁽¹²⁾ Bruce Eckland의 개별성과 사회분위지 이론,⁽¹³⁾ Udry의 여파모델⁽¹⁴⁾ 등이 언급되고 있다. 1970년대 배우자선택리뷰(Murstein, 1980)에서는 Murstein의 SVR 모델외에 Cewis의 Dyadic formation theory, Centers의 Instrumental theory⁽¹⁵⁾를 새로운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론들을 재구조화하여 두 편집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I. 社會交敵論의 觀點

인간은 비용이 큰 행동은 피하고 보상과 이익이 있는 지위, 관계의 상호작용함으로써 안정되고 만족한 감정상태 및 행동을 추구한다. 보상을 얻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르며 큰 비용이 요구될 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交換은 人

(7) 김희진, 김영희, '배우자선택과 상의식에 관한 연구' 일보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2호, 1983, p.108.
 (8) 김희진, 결혼과 가족, (서울, 이화여자출판부, 1983), p.98.
 (9) Wesley R. Burr etc.(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259.
 (10) F. Ivan Nye, The Famil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3), pp.116-122.
 (11) Bert N. Adams, op. cit., p.245.
 (12) Bob & Marglet Blood, op. cit., pp.92-114.
 (13) Jame M. Henslin,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80), pp.129-149.
 (14) 윌리, 김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서성출판사, 1985), pp.240-242.
 (15) Felix M. Pararéo(Ed), Decade Review; Family Research 1970-1979, NCFR, Vol.42, No.4, 1980, pp.51-62.

間의 認知를 근거로 하여 유용한 결과를 선택할 것임을 기조로 한다.⁽¹⁶⁾ 結婚을 위한 配偶者 選擇過程도 일종의 社會交換이다. 물론 그런 선택과정에는 대상에 대한 상대적 評價가 있으며, 거래과정에는 어떤 판단 기준이나 힘이 있어 거래관계를 통제하고 교환하는 법칙이 있다. 이런 통제 및 교환 법칙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른데, 그 社會文化 特性的 지배를 받는 것이다.⁽¹⁷⁾ 그러나 대체로 配偶者 選擇에 관여되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신분, 사랑과 친등은 그 가족의 유대 및 기능을 적절히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親族中心의이고 현연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家를 우선으로 하고 그 기능 및 계승을 위해 배우자선택이 통제 교환된 것이다.⁽¹⁸⁾ 이러한 과정은 韓國의 傳統社會에서도 나타났다. 우리 先祖들은 家의 계승 번영을 위해서 配偶者 選定時에 兩家の父나 祖父가 兩家の 社會의 地位와 經濟的 條件을 고려한 仲媒婚을 실행하였다. 결혼당사자들은 結婚의 客體로서 이 客體를 통해 두 家族이 인적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한 배우자결정의 판단 근거는 양가의 경제적 요건과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며 家門 및 출신성분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때 그 가족의 사회적 시위 경제적, 조건에 따라 男家에서 女家를 보내지는 贈物의 양과질이 결정되는데 이 예물은 女家の 결혼비용에 사용되므로 남는 것은 없다. 더구나 女家에서도 男家도 유사한 양과질의 예물을 보내므로 禮物婚은 대체로 균등원칙인 것으로 보인다.⁽¹⁹⁾ 이러한 前時代의 잔재는 오늘날 새로운 형태로 변용되어 과다한 혼수비용과 혼수요구 등으로 자주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러나 現代의 韓國家族은 自由結婚制度를 받아 들이고 個人中心의 價値觀을 수용하게 되었으므로 配偶者 選擇過程은 보다 자유로운 기회를 통하여 사랑과 애정으로 통칭되는 정서적 매력이 행동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개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개인 對 개인으로서 서로의 만족한 감정상태 관계, 가치관 공유, 역할을 보완성의 社會心理學的 交換을 통하여

決定하게 된다. 객관적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는 社會經濟的 條件下에 個人間에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심층적 요건을 교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균등한 資質을 가진 男女가 同質的 결혼을 추구하거나, 자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줄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피차에 교환이 가능한 資質을 주고받는 配偶者 選擇過程이 있게 될 것이다.⁽²⁰⁾ Murstein(1980)은 SVR(Stimulus-Value-Role) 모델을 통하여 交換論的 觀點을 주장한다.⁽²¹⁾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 상황일 때 매력과 흥미는 자신의 가치교환에 의존하기도 하며 선택과정이 진행중일 때는 자극, 가치비교, 역할양립성 등이 여러 형태로 작용된다. 자극단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매력, 킴관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평등성에 기초를 두고 본다. 그러다 가치비교의 단계에서는 인생관, 성격, 결혼, 교육, 여행, 종교관, 사회정치적 견해등의 가치가 유사한가를 비교하고 타진한다. 그러나 가치유사성을 충분조건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상의 역할 기대, 역할 양립성에 대한 일치를 다협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에 다다르게 된다.⁽²²⁾ 따라서 현대의 배우자선택과정은 자유로운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社會 또는 家族의 單位보다 個人이 單位가 되어 社會心理的 交換을 통하여 選擇 決定할 수 있을 것이다.

2. 濾過論的 觀點

配偶者 選擇을 過程中心으로 보고 논의한 觀點으로서 특히 自由로운 만남과 데이팅이 실행되고 있는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모델이나, 한국사회에서도 데이팅이 거의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모델일 것으로 보인다.

Alan Kerckhoff와 Keith Davis(1962)는 내리생을 중심으로 배우자선택과정을 조사했다. 초기 단계에는 사회계층이나 종교등의 외형적 조건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價値觀의 유사성을 타진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욕구보완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결정한다고 본다. 즉 內婚的 要素(endogamy)→同質的 要素(homogamy)→異質的 要素(he

(16) Wesley R. Burr(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p.1-11.

(17) 윌리엄 구도(최홍기 역), 앞의 책, pp.54-55.

(18) Adams, op. cit., pp.227-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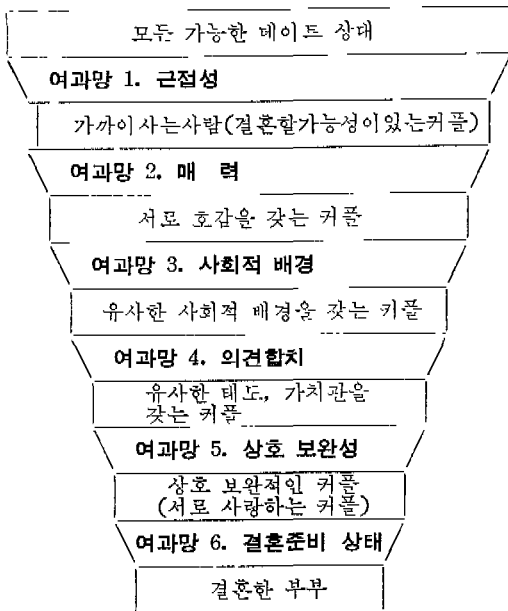
(19) 이광규, 앞의 책, pp.83-87.

(20) 최신덕, 앞의 책, p.74.

(21) Bernard I. Murstein, Mate selection in the 1970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2, No.4, 1980, pp.51-62.

(22) F. Ivan Nye, op. cit., pp.116-122.

<도표 1> (Udry, 1971 : 1974)



terogamy)의 과정⁽²³⁾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Udry(1974)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6단계 濾過를 동한다고 주장한다. Udry의 모델을 보면 <도표 1>과 같다.⁽²⁴⁾

① 우선 거리상 근접하여 접촉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가까운 이웃, 가까운 교향, 같은 학교, 같은 종교단체, 같은 직장일수록 선택할 확률이 높다.

② 매력의 요인이다. 신체적, 정서적 매력이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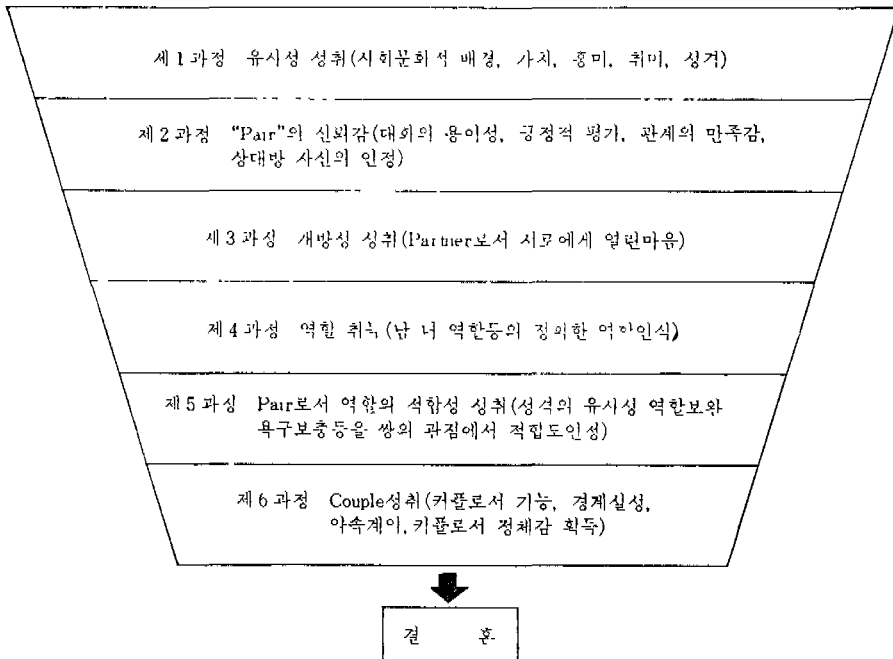
③ 사회적 배경의 유사성이 요인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필터로서 작용한다.

④ 의견합치과정으로서 유사한 태도, 가치관 행동, 신념 등이 필터로 작용한다.

⑤ 상호보완성을 맞추어 본다. 서로에게 부족한 점, 결점, 역할보완의 가능성을 필터로서 작용시킨다.

⑥ 위의 여과망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혼준비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학교졸업, 적절한 연령, 감정적 준비 등을 맞추어 만족한 배우자선택이 끝난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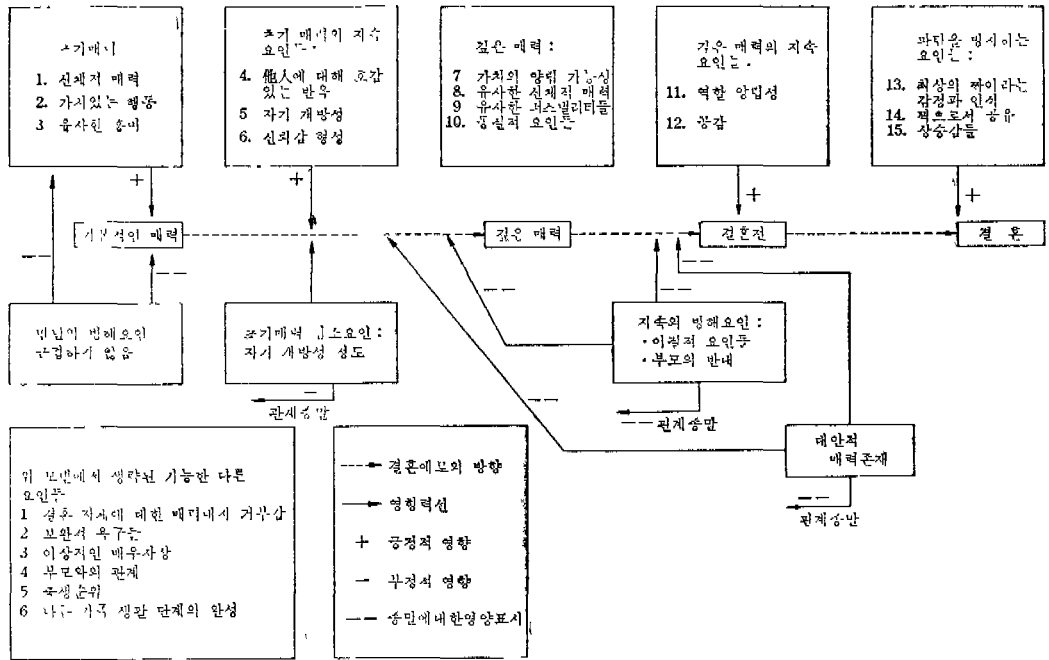
<도표 2> 배우자 선택과정의 6단계



(23) 최선덕, 결혼과 가족, (서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92-102.

(24) 유진, 앞의 책, p.241에서 재인용.

<도표 3> Adams에 의한 배우자 선택 과정 모델



한 Lewis는 Dyadic formation theory에서⁽²⁵⁾ Udry와 유사한 6단계를 제시했으나 다음 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① 사회문화적 배경, 가치관, 흥미, 취미, 성격 등에서 서로에게서 공감을 성취한다.
- ② “pair”로서 신뢰감을 형성한다. 내화가 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관계의 만족감을 느끼고, 상대방의 자아를 인정하게 된다.
- ③ “partner”로서 받아들이고 개방한다.
- ④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의 정확성을 나신해 본다.

⑤ 이걸 “pair”로서 역할이 적힌가, 역할이 보완적인가, 욕구 실천상 보완적인가를 고려한다.

⑥ “couple”로서 결정됨을 성취한다. 키끌로시 가능하고 경계를 실감한 상태에서 적극적 개인, 아속 등을 실행하며, 커플로서의 정체감을 갖게 됨으로써 최종적인 配偶者 選擇이 일어난다. 이를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2참조)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配偶者 選擇過程에

대한 심층적 분석⁽²⁶⁾은 다음 <도표 3>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配偶者 選擇過程은 結婚이라는 복표지점을 향하여 두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발달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초기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될 때에는 촉진시키는 긍정적 요인과 관계를 해소시키는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모델은 데이팅의 실현과 자유로운 만남을 전제로한 配偶者 選擇過程 및 要因分析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Ⅲ. 配偶者選擇에 관련된 諸要因

배우자선택이 중요한 주제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을 연구한 결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結婚觀이나 家族觀의 調査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는⁽²⁷⁾을 중심으로 배우자 선택에 관련된 요인들을 고찰하여 一般的 要因과 內的 要因으로 大別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5) Bernard I. Murstein, op. cit., pp.51-62.

(26) Adams, op. cit., p.265.

(27) 한국의 결혼관, 가치관에 관련된 연구들은 집고문된 목록에 수록되어 있음.

〈표 1〉 배우자선택 형태에 관한 선행연구들

연구자	이효제		이래영		박인덕		최송일		유호련		이성해		조규연		이경숙		강은숙		김희선		강호걸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1958	1965	1973		1976		1977		1979		1980		1980		1981		1983		1984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주배혼(부·모·경·선)	11.5 (%)	3.4 (%)	52.2 (%)	63.4 (%)	11.63 (%)	8.71 (%)	1.49 (%)	5.6 (%)	2.5 (%)	0.5 (%)	3.8 (%)	1.7 (%)	0 (%)	0.3 (%)	37.9 (%)	7.2 (%)	9.0 (%)				
승배·연애혼	① 35.9	① 29.6			29.33	62.88	94.53	① 6.3	① 11.1	① 22.3	① 10.2	① 22.5	① 11.0	① 17.2								
① 선경간주 고세																						
② 선고개유 결정	② 35.2	② 40.3						② 70.4	② 81.8	② 73.8	② 86.4	② 69.4	② 44.0	② 52.1								
자유연애혼(본인결정)	13.9	24.9	30.8	21.1	59	28.41	2.49	22.0	4.5	2.0	21.8	6.4		29.6	60.5	60.3	49.7					
부·은·남	3.5	1.7	17.1	15.6			0.50	7.4		1.5					1.7							
은·남·자	선지역 부인	분당동 지역 부인	서술시 비·기 촌시	현곡 고등학교 학생	부산지 역 지역 여성	부산 지역 남녀	서울의 대중 미혼녀	미혼 근로자 미혼녀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	일본어 자재학 생	전주지 방 대학 생	지방 대학 생										

1. 配偶者選擇의 一般 要因들

배우기시대 및 설경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요인들로는 ① 적세 배우자를 만난 시기, ② 배우자선택 형태, ③ 데이트성립과 맞선, ④ 배우자란 만난 후 결혼결정기간, ⑤ 선택결정후 결혼까지의 기간, ⑥ 약혼기여부, ⑦ 기수·궁약, ⑧ 연령차이, ⑨ 출생순위, ⑩ 혼전성리제어부 등을 범주화했다.

(1) 배우자선택형태와 만남의 계기

배우기시대형태는 選擇의 主體에 따라서 仲媒, 自由戀愛, 〈仲媒戀愛〉의 실태형으로 나눌 수 있다. 仲媒婚은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결혼선정자가 되며 自由戀愛婚은 결혼기간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택하고 남녀간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仲媒戀愛婚은 부모가 우선권이 있어 소개하고 다음에 심추하는 경우와 기유교제를 통한 후 양가 부모동의를 받은 先交際·後父母의 승락 순서가 있다. 結婚觀研究들에서 나타난 경과들을 보면 대체로 自由戀愛婚과 仲媒戀愛婚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여성일수록 부모의 승락을 받는 仲媒戀愛婚을 선호하고 있다(표 1 참조).

만남의 시기에 따라하여 보면 박인덕(1973: 161)은 취력·궁기의 소개기 33% 부모의 소개가 23.7% 기유교제의 도입에기가 21.7%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의 경우는(강호걸, 1984: 23) 이성교제의 상대자를 알게된 능기가 우연한 기회가 36.5%, 친구·선배의 소개가 36.3%, 친척 소개가 3.1%정도였다.

(2) 데이트성립과 맞선

데이팅이라 불리는 異性交際는 20세기의 가장 흥미있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지구사회나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가정에서 체화된 생활을 해왔다. 근대사회로 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교육 등으로 남녀의 일상적 접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성교제가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이와 같은 데이팅은 이제는 일반화되었으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²⁸⁾ 특히 그 중에 配偶者選擇의 機能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데이팅기술도 부족하고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맞선의 형식으로 配偶者選擇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데이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방적이며 내다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미혼자나 대학생층에서는 보고되었다. (이경숙, 1980: 46, 김호걸, 1984: 21, 강은숙 1981: 36)

(3) 配偶者選擇決定 및 結婚까지 기간

데이팅을 하거나 맞선을 고세되더라도 結婚을 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을 결심하였다더라도 결혼준비를 위한 기간이 요구된다. 보통 後者의 경우를 約婚期間이라고 한다. 약혼기간이 긴수록 結婚시 節에 成功的 適應을 하는

(28) Landis (1954)는 데이팅기능은 ① 사회식용력 ② 부계의 대처능력 ③ 위생시기, 투표규명 ④ 남녀이원력숙 ⑤ 성별 및 이해관 등은나고 보았다. 유영(1985)은 ① 사회의 기능 ② 이성의 지음 ③ 인식도야의 기능 ④ 배우기 선택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빈수 이상이 ছিল었다고 한다.⁽²⁹⁾ 理想的인 交際期間에 대한 논의란 보면 6개월—1년이 가장 많다. (고순자, 1981 : 42, 박인덕, 1973 : 163, 이경숙, 이 1980 : 48) 이상적인 約婚期間은 4—7개월, 4개월미만이 48.3%, 33.0%(강은숙, 1981 : 60)로 나타났다. 리호원(1983 : 69)연구에 의하면 결혼결정시기를 남녀 모두 판단이 확실할 때라고 보았다. 남성의 경우는 경제기반이 있을 때 결혼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응답했다. 김혜선(1983 : 116) 연구는 結婚을 전제로 교제해야 할 기간에서 1년, 2년이 28.8%, 28.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約婚式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젊은 층은 가능하면 약혼을 하는 것이 좋다.(강은숙, 1981 : 58)고 본다.

(4) 사주·궁합

결혼할 상대방의 四柱를 五行에 맞추어 相生과 相剋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 방법인데, 四柱와 五行에 剋이 있으면 불길하다고 하여 한국은 예로부터 配偶者를 사람과 궁합을 보는 습관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신심있게 전해지고 있다. 結婚觀研究에서는 필수적일 뿐 아니라 「配偶者 決定에 自信感을 갖기 위하여」 또는 「혼인의 반전을 기하기 위하여」 궁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반면에 「오랫동안 교제했거나」, 「상대는 스스로 개발하므로」 불필하다고 수상하는 측이 거의 반반이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맞고 사주·궁합이 맞지 않아 빈대를 받을 경우 결혼을 하겠다고 더 많이 나타난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불 필요가 없거나 중요치 않다고 보지만 여성들일수록 보는게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경숙 1980 : 57, 강은숙 1981 : 50, 리호원, 1983 : 61, 박진숙, 1984 : 13, 강호철, 1984 : 37, 소규인, 1980 : 27)

(5) 연령차와 출생순위

부부간의 연령차이에 대하여 정대저 기준은 없고 그 사회문화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3—4세 인상이다. 가장 행복한 연령차이는 부부나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희망 배우자의 연령차나 실제 기혼자의 경우 대부분 3—4세 십단에 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결혼 평년연령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3—4세 정도

이다. 출생순위가 배우자 선택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국 가족의 특성과 관계가 깊다. 直系家族으로서 長男이 他子女에 비해 우대되며 성취여기지만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보기도 형제들은 농출해야 한다는 책임때문에 여성들은 첫남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 次男 등은 혼자분하나라는 이유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외남아들 외동딸도 기피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연구(이경숙, 1980 : 59, 유호련, 1977 : 516, 강은숙, 1981 : 41, 리호원, 1983 : 74—75)에 의하면 配偶者의 출생순위가 상관없다가 내부분이다. 그러나 그외에는 次男·次女를 선호하고 長男·長女·외아들·외동딸, 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婚前 性關係

婚前 性關係에 대한 가치관은 사회변화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혼전의 순결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다음으로 혼전 성관계가 있었다 안시라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별 문제로 삼기 않겠다고 함으로써 피도가지 변희를 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의 허용성은 남성의 경우가 강히며 여성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혼전 경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한다. (고순자, 1981 : 58, 강은숙, 1981 : 49, 유영주, 1976 : 142, 김호철, 1941 : 49, 소규인, 1980 : 19, 이경숙, 1980 : 49).

2. 配偶者 選擇의 內的 要因들

배우자선택 및 결정에 관련된 內的 要因으로는 ① 친구 및 부모의 지지도, ② 호감과 매력, ③ 신체적 접촉과 개성, ④ 성과 사랑에 대한 의식, ⑤ 성서의 유사성, ⑥ 이상적 배우자의 부합도와 결혼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社會心理的 變因에 따라 配偶者 選擇現象을 분석할 수 있다.

(1) 친구 및 부모의 지지도

부모의 지기경도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³⁰⁾ 또한 자유인애혼보다는 先交際·後決定 또는 先決·定·後交際를 선호한다는 것은 큰 부모의 의식을 존중하여 부모의 지지를 받는 결혼을 희망하는 증거이다. 가끔씩 부모의 반대가 오히려 두 사람간의

(29)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5), p.142.

(30) 한남세,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5), p.21.

관계를 심각시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모의 승락을 받는 配偶者選擇을 하는 경향이 다. 또한 친구의 반응도도 영향을 준다. Robert Lewis(1973)에 의하면⁽³¹⁾ 친구나 친척에 의해 커프로 인정받을수록 지속적이며, 의미있는 사람들의 부정적 내도는 그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호감과 매력

태이딩을 하게 되면 호감과 매력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초기 매력은 신체적 매력, 언령, 유사한 취미, 대화 등을 통해 형성된다. 서로의 만남에 상대방 없다면 서로의 견해와 가치관의 수용, 자아존중, 애정, 성격의 표현이 일맞으면 깊은 매력의 단계가 된다.⁽³²⁾ Robert Winch(1958)는 성격과 욕구의 상호보충성이 있어야 한 반면에 Murstein(1965)는 몇 학자들은 성격의 반대성은 오히려 공격과 비난의 내상이 되므로 유사한 경우가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가치문자는 종교 교육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하여 유사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더욱 깊은 매력을 갖게 한다고 본다.⁽³³⁾ 즉 사회적 범주인 유사한 종교, 학력, 경제적 배경 등은 어느 정도 가치일치, 신뢰감형성, 상대방의 행동 동기 이해의 기사가 되므로 유사할수록 매력적인 것이다. 아직까지 외적 지표인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종교, 외모 등을 통하여 배우자선택의 조건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러나 앞으로는 내면적 측면인 성격의 메카니즘, 욕구, 가치관, 역할의 잉립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매리의 변모 및 배우자선택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매력에 대한 논란은 계속 연구중이나. 다만 배우자선택에 관련된 매리의 지속요건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신과 유사한 것을, 결점이나 부족한 것, 과도한 것은 자신의 반대적인 특성을 갖추었을 때인 것으로 보인다.

(3) 개방성과 성격의 유사성

개방성에 대해서는 인구가 부족한 편이다. 배우

자선택에 있어 초기의 개방적 만남은 서로를 잘 알 수 있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개방의 좋은 방향은 신뢰감형성에 편안한 감정 서로의 유사성과 보완적 측면을 인식하게 해 준다. 서로를 포용한 정도의 개방성은 초기의 자극적인 매력이상으로 관계를 지속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과도한 개방을 통한 동거 등은 결혼욕구를 감소시키거나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부정하기도 할 수 있다.⁽³⁴⁾ 개방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중매혼보다 연애훈을 더 지지하기도 한다.⁽³⁵⁾

성격의 유사성의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다. 배우자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의 제1순위가 성격으로 시식(조규연 : 15, 김영희 117)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성격의 유사성 또는 메카니즘은 중요한 특성임에 틀림없다. Winch의 연구는 서로에 대한 욕구의 성격의 보완성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³⁶⁾ Centers(1975)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에 의한 욕구분화의 꺾과 틀이 달라야 한다. 즉 남성의 욕구는 공격적 지배성, 성취감, 과시성 등에서 점수가 높다. 단일 남성이 이에 내한 점수가 낮으면 여성이 더 높음으로써 욕구 및 성격의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Center의 이론은 아직도 모호하며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격의 유사성 반대성의 문제는 계속 연구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4) 성과 사랑

배우자선택의 동제는 가족의 기능 및 유대론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친족중심 사회에서는 사랑과 성을 배우자선택에 결합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기회가 보장되고 경제적 매력을 기준으로 한 사회에서는 서로의 경제적 매력이 행동으로 드러나면서⁽³⁷⁾ 성과 사랑은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사랑의 유형은 여러 면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³⁸⁾ Lee(1976)의 lovescale에 따른 3유형과 3유형이 결합된 사랑의 유형에 따라 배우자선택

(31) Wesley R. Burr op.cit. pp.259-297.

(32) Ibid.

(33) Bernard I. Murstein, op. cit., pp.51-62.

(34) Bert N. Adams, 'Mate selection in the U.S.; a theoretical summar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 259.

(35) 김혜진, 일의 책, p.118.

(36) Benard I. Murstein, op. cit., p.61.

(37) Adams, op. cit., p.227.

(38) Hurllock은 이성자의 지평을 「충미지 사랑」, 「강아지 사랑」, 「열애기」로 나누어 옮긴의 깊어지는 단계로 분류했다. 유형주는 「이타적 사랑」, 「동료적 사랑」, 「성격적 사랑」, 「낭만적 사랑」등으로 분류하여 배우자선택에는 특히 「성격적 사랑」과 「동료적 사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빛 결정지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³⁹⁾ 즉 사람의 유형도 서로가 만나지는 상대자에 따라 다르며 작용하는 메카니즘도 다르다. 우리나라도 전자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하고 성과 사랑(애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이상적인 배우자상

Carl Jung에 의하면 무의식적인 願望을 추구하여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서 본능적으로 특별한 일치감을 느낀다고 본다. 즉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여성에게는 animus, 남성에게는 anima가 있다. 유전적으로 특별한 배우자상을 갖고 있음으로써 타인 순간 서로에게 그런 일치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길게 생물학적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결정된다고 본 연구는 없다. Freud와 입장에서는 외디푸스식으로 배우자선택시에 부모의 대리로 부모의 이미지의 유사한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한다고 본다. 즉 부모의 이미지가 좋은 경우는 남성우 이터니와 유사한 여성을 여성은, 아버지와 유사한 남성을 이상적인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것이다.⁽⁴⁰⁾ 부모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경우는 그 반대일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3. 配偶者選擇 條件의 重要度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적인 한국가족은 가족이나 사회경제적 시위, 신분 등의 비상이 컸으나,⁽⁴¹⁾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個人的 資質을 중요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배우자 선택 조건의 重要度에 대한 先行 研究 結果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인덕(1973 : 158—160)은 애성(37.5%), 건강(25.2%)를 남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성은 용모(20.7%), 여성은 재능(21.7%)를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정환경조건에서는 가족상행(28%), 덕성(26%)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종인(1976 : 3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중요도로서 본 결과 ① 성격, ② 건강,

③ 순결, ④ 지능, ⑤ 외모, ⑥ 직업, ⑦ 재산, ⑧ 가풍 순위로 나타났다. 유영주(1976 : 143—146)의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 남자는 ① 성숙도, ② 외모, ③ 교육, ④ 건강, ⑤ 신념, ⑥ 경제적 순위인 반면에 여자내리생은 ① 성숙도, ② 건강, ③ 신념, ④ 교육, ⑤ 경제력, ⑥ 외모로 응답했다. 또한 기혼여성은 ① 건강, ② 경제력, ③ 교육, ④ 성숙도 ⑤ 신념, ⑥ 외모 순위를 나타냈고 기혼남성은 ① 건강, ② 교육, ③ 신념, ④ 성숙도, ⑤ 경제 ⑥ 외모순위로 결정하였다. 대학생은 성신식 축력, 년인 성숙도를 ① 위로 보았고 특히 남학생은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 기혼자들은 ① 위는 건강이고 ⑥ 위는 외모라고 말했다. 조규연 1980 : 15—16)은 성격(49.2%), 건강(24.2%), 사회적·경신적 성숙도(15.8%), 교육(5.5%), 용모(3.5%) 순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고순자(1981 : 34)에 의하면 가족상황(35.9%), 직업(22.1%) 父의 사회적 지위(16.4%), 덕성(14.8%)으로 보고했다. 즉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과 사회경제적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강은숙(1981 : 55)은 남녀 모두 건강(23.8%), 성격(20.1%), 가정환경(17.9%), 경제력 능력(14.5%), 애성(7.8%), 교육수준(5.8%)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취미 세진, 가문, 사주, 양합, 춘신지역, 혼생순위, 외모는 거의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강은숙(1981 : 66)은 남자대학생은 ① 성격, ② 건강, ③ 학력, ④ 외모, ⑤ 능력, ⑥ 가문, ⑦ 직업, ⑧ 재산으로 본 반면에 여학생은 ① 성격, ② 건강, ③ 능력, ④ 학력, ⑤ 외모, ⑥ 가문, ⑦ 직업, ⑧ 재산 순으로 응답했다. 노동자 남자는 ① 건강, ② 성격, ③ 외모, ④ 능력, ⑤ 학력, ⑥ 가문, ⑦ 직업, ⑧ 재산순위로 노동자 여자는 ① 건강, ② 성격, ③ 능력, ④ 직업, ⑤ 학력, ⑥ 외모, ⑦ 재산, ⑧ 가문 순위로 응답했다. 대학생은 성격을 ① 위로 노동자는 건강을 ① 위로 보았으며 남자 모두 외모를 중요하게 이었다. 김혜진(1983)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은 ① 성격(인기), ② 애정, ③ 건강은 매우 중요하게 봄으로써 상대방의 내면적 개인적 조건을 고려한다. 생김새, 학력, 수입, 인친친성, 장래성을 비교적 중

(39) Love scale(1976, Lee)의 3유형으로 ①Storge: 친구와 같이 중요하고 이웃같이 느끼며 성숙하는 사랑, ② Eros: 비이성적으로 야만나유과 위험한 것은 추구하는 애정 ③ Ludus: 흥미, 스포츠등을 함께 보며 느끼는 사랑이 있다. 이것이 결합된 형태는 ④ Mania: Eros+Ludus ⑤ Pragma: Ludus+Storge ⑥ Agape: Eros+Storge

(40) Bruce K. Eckland, 'Theories of Mate Selec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80), pp.129—133.

(41) 이영자, 앞의 책, pp.76—96.

오래게 생각하는데 이는 경제적 인종과 권력·권력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인종 관계의 안정을 추구한다. 집안, 언명, 취미, 종교, 순연성, 시부모의 동거는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끈으로 강호철(1984: 42-43)은 남사대학생은 성격(50.7%), 거장(24.2%), 외모(11.9%)로 여자대학생은 ① 성격(38.6%), ② 장래성(29.0%), ③ 건강(15.7%)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수련대로 음수목 개인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치관, 매력, 첫인상, 시부모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본 先行 研究를 통하여 배우자 선택시에 重要度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Ⅶ. 研究方法 및 節次

1. 研究對象

본 연구 대상은 이기 配偶者 選擇을 결정한 기혼자

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86년 4월 10일~30일 동안이었다. 조사대상자 300부중 최종 27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요 거주지역은 울산시이며 일반직 성직은 <표 2>에 나타나고 있다.

2. 調査道具 및 分析方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간단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는 문항의 배우자선택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혼자문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같은 세대에 대해 배우자선택에 대한 중요도를 개방 문항으로 묻고 나서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울산대학교 전산계산소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리하였다. 통계방법은 주로 χ^2 검정, 백분율 등을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수	값	빈도(%)	계	변수	값	빈도(%)	계			
성별	남	99(36)	275 (100)	교육수준 (남녀)	국졸	5 (1.9)	268*(100)			
	여	176(64)			고졸	16 (6.0)				
연령별	20대	93(33.8)	273*(100)		(남녀)	내졸		103(38.4)	267*(100)	
	30대	121(44.0)				내졸 이상		14 (5.2)		
	40대	46(16.7)				(부인)		무학		1 (0.4)
	50대	15 (5.5)						중졸		15 (5.6)
출생순위 (남녀)	상남	114(45.4)	251*(100)		(남녀)	고졸		44(16.5)	275 (100)	
	차남	96(38.2)				대졸		125(46.8)		
	막내	41(16.3)				대졸 이상		79(29.6)		
	(부인)	상녀				114(46.9)		243*(100)		(남녀)
차녀		93(38.2)	노무직	20 (7.3)						
막내		36(14.8)	사무직	88(32.0)						
가족형태		가족	232(84.7)	274*(100)	(남녀)	내직	13 (4.7)			
	가족	42(15.3)	농업·유사직			8 (2.9)				
종교	불교	120(43.6)	275 (100)	(남녀)	서비스직	14 (5.1)				
	기독교	48(17.5)			행정	57(20.7)				
	취수교	16 (5.8)			전문기술	60(21.8)				
	없음	84(30.5)			(부인)	가정주부	228(82.9)			
	기타	7 (2.5)				무직	1 (0.4)			
가족수입	30만원 미만	48(17.6)	272*(100)	(남녀)		노동부	8 (2.9)			
	31-70만원	201(73.9)				매주	13 (4.7)			
	70만원 이상	23 (8.5)				농업·유사직	3 (1.1)			
종교	불교	120(43.6)	275 (100)	(남녀)	서비스직	7 (2.5)				
	기독교	48(17.5)			행정	10 (3.6)				
	취수교	16 (5.8)			전문기술	5 (1.8)				
	없음	84(30.5)			(부인)	가정주부	228(82.9)			
	기타	7 (2.5)				무직	1 (0.4)			
가족수입	30만원 미만	48(17.6)	272*(100)	(남녀)		노동부	8 (2.9)			
	31-70만원	201(73.9)				매주	13 (4.7)			
	70만원 이상	23 (8.5)				농업·유사직	3 (1.1)			
종교	불교	120(43.6)	275 (100)	(남녀)	서비스직	7 (2.5)				
	기독교	48(17.5)			행정	10 (3.6)				
	취수교	16 (5.8)			전문기술	5 (1.8)				
	없음	84(30.5)			(부인)	가정주부	228(82.9)			
	기타	7 (2.5)				무직	1 (0.4)			
가족수입	30만원 미만	48(17.6)	272*(100)	(남녀)		노동부	8 (2.9)			
	31-70만원	201(73.9)				매주	13 (4.7)			
	70만원 이상	23 (8.5)				농업·유사직	3 (1.1)			
종교	불교	120(43.6)	275 (100)	(남녀)	서비스직	7 (2.5)				
	기독교	48(17.5)			행정	10 (3.6)				
	취수교	16 (5.8)			전문기술	5 (1.8)				
	없음	84(30.5)			(부인)	가정주부	228(82.9)			
	기타	7 (2.5)				무직	1 (0.4)			
가족수입	30만원 미만	48(17.6)	272*(100)	(남녀)		노동부	8 (2.9)			
	31-70만원	201(73.9)				매주	13 (4.7)			
	70만원 이상	23 (8.5)				농업·유사직	3 (1.1)			

* 무응답은 missing 처리한 결과임.

V. 結果 및 解釋

1. 배우자선택에 관련된 일반 요인들

(1) 배우자선택형태와 만남의 계기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배우자 선택형태는 <표 I-1>과 같다. 남녀별로는 유의하게 차이는 없으나 대체로 자유연애혼이 40.7%, 중매연애혼이 33.5%, 중매혼이 25.8%로 나타났다. <표 I>의 선행연구의 비교하여 보면 비슷한 성향을 갖는다. 다만 비혼자들은 자유연애혼을 희망하면서 先交際·後決定을 희망 기풍으로 내담했다. 실제 배우자를 선택한 때는 자유연애가 더 높고 중매연애혼이 다음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들 부모세대의 配偶者選擇方法을 살펴보면 모두 중매혼을 동하였다. <표 I-2 참조>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된 구체적으로 보면 <표 I-3>와 같다. 주 친구·직장동료의 소개가 35.0%, 우연회가 23.4%, 맞선이 24.1%이다. 배우자가 서로 선택되려면 근접해야 된다는 이론은 그들 만남의 계기를 통하여 보면 설명력이 크다. 이는 박인덕(1973), 강호길(1984)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이성교제의 범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부모의 선치는 14.6%로 나타났는데 결과 부모가 배우자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本人들이 結婚의 主體가 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2) 데이트경험과 맞선

본 연구대상자들의 데이트경험은 <표 I-4>와 같고 맞선의 경험은 <표 I-6>와 같다. 데이트경험은 남녀 모두 70%이상 이었으며 맞선 경험 또한 60%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를 하여 서로가 배우자로 선택되지 않을 때는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 보았더니 <표 I-5>와 같다. 여성은 친구로 사귀다 헤어지는 경우가 34.1%인 반면에 남성은 성격차이가 25.7%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서로 이룬 경우에 남성은 이별을 하는 반면에 여성은 성격차이,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다고 하였다.

(3) 배우자선택결정 기간

데이트를 하던 맞선을 보든지 結婚을 결정할 때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6개월-1년 이내에 결혼을 결정한 경우가 31.7%이다. 이는 선행연구 논의와 일치한다. 특히 3개월 이내에 결혼을 결정한 경우에도 24.9%이다. 적어도 1년동

안에 71.7%정도는 이성교제나 맞선을 통하여 배우자 선택을 끝낸다. <표 I-7 참조> 그 상대방과 결혼하겠다고 한 후 실제 결혼하는 경우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표 I-8>과 같다. 3개월 이내에 49.6%는 실제 결혼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다음으로 6-12개월사이의 약혼기간을 두는 경우가 37.4% 정도이다. 비혼자들이 이성적인 약혼기간이라고 생각한 기간보다는 빠르게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편이다. 약혼식여부를 살펴보면 <표 I-9>와 같은데, 약혼식을 하지 않을 경우가 69.5%이며 성별로 고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약혼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젊음은 가능하면 약혼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거니 본 조사에서 보면 점차 약혼식을 하지 않는 성형이다.

(4) 사주·궁합

기혼자가 본 연구대상인 편지로 실제 결혼남자와 일대만큼 사주·궁합을 보았는가를 살펴보면 그 흥행도를 알 수 있다. <표 I-10>에서 보듯이 전 반식으로 본 경우가 56.0%이고 약본 경우가 44.0%이다. 그런데 성별로 여성이 64.8%로 보았으며 남성은 40.4%로 보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필요성의 논의에서 반반인 것과는 거의 일치하며 특히 여성들이 미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이 配偶者 選擇 및 決定에 사주·궁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5) 연령차의 출생순위

기혼자의 배우자와의 연령차를 보면 <표 I-11>과 같다. 3-4년차이가 44.3%이고 1-2년차이가 26.6% 5-6년 차이가 17.0%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성적인 배우자의 연령차이를 희망하는 실제에서도 그러한을 증명한다. 배우자간의 출생순위는 <표 I-12>와 같다. 상녀는 자남과(46.8%), 차녀는 장남과(49.4%) 3녀 이상은 장남과(48.6%) 배우자가 되고 있다. 각 항목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대체로 세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조사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혼전 성관계

혼전 순결성의 문제는 아직도 중요한 테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대상자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전 성관계를 묻고 있는데 <표 I-13>과 같다. 23.6%가 있었다고 하였고 76.4%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

〈표 I-1〉 배우자 선택형태

문항	성별	남	여	계	
자유연애론		41(41.4)	71(40.3)	112(40.7)	$\chi^2=0.357$ $df=2$ N. S.
동매반·연애반		31(31.3)	61(34.7)	92(33.5)	
중매론		27(27.3)	44(25.0)	71(25.8)	
계		99(100)	176(100)	275(100)	

〈표 I-2〉 부모의 배우자 선택 형태

문항	부모	남편 부모	부인 부모
중매론		244(88.7)	240(87.3)
연애론		17 (6.2)	23 (8.4)
무응답		14 (5.1)	12 (4.4)
계		275(100.0)	275(100.0)

〈표 I-3〉 현재 배우자를 만난 계기

문항	성별	남	여	계	
우연히		25(25.3)	39(22.3)	64(23.4)	$\chi^2=0.604$ $df=4$ N. S.
친구·식장·동료의 소개로		32(32.3)	64(36.6)	96(35.0)	
밝선		24(24.2)	42(24.0)	66(24.1)	
부모의 선처		15(15.2)	25(14.3)	40(14.6)	
기타		3 (3.0)	5 (2.9)	8 (2.9)	
계		99 (100)	175 (100)	274 (100)	

〈표 I-4〉 데이트 경험과 맞선

문항	성별	남	여	계	
있	다	74(74.7)	123(70.3)	197(71.9)	$\chi^2 =0.422$ $df = -1$ N. S.
없	다	25(25.3)	52(29.7)	77(28.1)	
계		99 (100)	175 (100)	274(100)	

하였다. 정의식에서 성의 허용성은 남성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성의 경험은 기혼자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配偶者選擇의 內的 要因들

(1) 친구 및 부모의 지지도

한국 사회의 배우자선택 형태가 자유연애혼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지지를 받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성향이다. 〈표 II-1〉에서 보듯이 매우 찬성하는 경우가 36.5% 약간 찬성이 41.2%로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모의 지지를 받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친구의 지지정도 또한 적극 찬성이 48.3% 약간 찬성이 43.9%로 오히려 부모의 찬성률보다 높다. 아마 친구 및 부모의 찬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으므로 현재의 배우자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배우자선택시의 중요도에서 검증될 것이다.

(2) 호감과 매력

호감과 매력은 개인을 기초로 한 배우자선택이 가장 중요할 때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내상의 현재 배우자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 보면 〈표 II-3〉과 같다. 남녀에 따라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데 남성은 매

〈표 I-5〉 있다면 헤어진 이유

문항	성별	남	여	계	$\chi^2 = 21.780^{**}$ $df = 7$ $**p < .01$
싫어서		10(14.3)	13(10.3)	23(11.7)	
부모의 반대		4(5.7)	14(11.1)	18(9.2)	
배신해서		4(5.7)	4(3.2)	8(4.1)	
성격차이로		18(25.7)	20(15.9)	38(19.4)	
서로 이리서		11(15.7)	11(8.7)	22(11.2)	
가치관 차이로		5(7.1)	13(10.3)	18(9.2)	
사회경제적배경이 달라서		11(15.7)	8(6.3)	19(9.7)	
그냥 친한 친구		7(10.0)	43(34.1)	50(25.5)	
계		70(100)	126(100)	196(100)	

〈표 I-6〉 맞선 경험

문항	성별	남	여	계	$\chi^2 = 0.566$ $df = 1$ <i>N.S.</i>
있	나	58(59.2)	113(64.6)	171(62.6)	
없	니	40(40.8)	62(35.4)	102(37.4)	
계		98(100)	175(100)	273(100)	

〈표 I-7〉 결혼 결정 기간

문항	성별	남	여	계	$\chi^2 = 2.158$ $df = 4$ <i>N.S.</i>
0-3개월 이내		28(29.5)	38(22.4)	66(24.9)	
3-6개월 이내		14(14.7)	26(15.5)	40(15.1)	
6-1년 이내		30(31.6)	54(31.8)	84(31.7)	
1-2년 이내		11(11.6)	26(15.3)	37(14.0)	
2-3년 이상		12(12.6)	26(15.3)	38(14.3)	
계		95(100)	170(100)	265(100)	

〈표 I-8〉 결혼 결정후 결혼까지 기간

문항	성별	남	여	계	$\chi^2 = 8.021$ $df = 4$ <i>N.S.</i>
3개월 이내		51(54.8)	79(46.7)	130(49.6)	
6개월-1년 이내		27(29.0)	71(42.0)	98(37.4)	
1-2년 이내		4(4.3)	9(5.3)	13(5.0)	
3년 이상		11(11.8)	10(5.9)	21(8.0)	
계		93(100)	169(100)	262(100)	

〈표 I-9〉 약혼식 여부

문항	성별	남	여	계	$\chi^2 = 4.457$ $df = 1$ <i>N.S.</i>
하	있	22(22.2)	62(35.2)	84(30.5)	
안	하	77(77.8)	114(64.8)	191(69.5)	
계		99(100)	176(100)	275(100)	

〈표 I-10〉 사주·궁합·여부

문항	성별	남	여	계	$\chi^2=14.297^{***}$ $df=1$ $***p<.001$
보았다		40(40.4)	114(64.8)	154(56.0)	
안보았다		59(59.6)	62(35.2)	121(44.0)	
계		99 (100)	176 (100)	275 (100)	

〈표 I-11〉 연령 차이

문항	성별	남	여	계	$\chi^2=10.641^*$ $df=4$ $*p<.05$
농업		13(13.1)	11 (6.4)	24 (8.9)	
1-2년차		25(25.3)	47(27.3)	72(26.6)	
3-4년차		34(34.3)	86(50.0)	120(44.3)	
5-6년차		23(23.2)	23(13.4)	46(17.0)	
7년이상		4 (4.0)	5 (2.9)	9 (3.3)	
계		99 (100)	172 (100)	271 (100)	

〈표 I-12〉 출생 순위

남녀	부위	출생 순위			계	$\chi^2=6.2$ $df=4$ $N.S.$
		상녀	차녀	3년 이상		
상남		44(40.4)	43(49.4)	17(48.6)	104(45.0)	
차남		51(46.8)	27(31.0)	11(31.4)	89(38.5)	
3남 이상		14(12.8)	17(19.5)	7(20.0)	38(16.5)	
계		109 (100)	87 (100)	35 (100)	231 (100)	

〈표 I-13〉 혼전성관계

분항	성별	남	여	계	$\chi^2=2.313$ $df=1$ $N.S.$
있었다		29(29.3)	35(20.3)	64(23.6)	
없었다		70(70.7)	137(79.2)	207(76.4)	
계		99 (100)	172 (100)	271 (100)	

우 호감을 느낀 경우가 47.5% 약간 호감이 간 경우가 49.5%이다. 그런데 여성은 약간 호감을 느낀 경우가 64.8%, 매우 호감을 가진 경우가 24.4%이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호감을 가진 경우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도가 높으며 여성은 약간 호감을 갖고도 배우자도 받아들이거나 약간 싫어도 결혼할 수 있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체로 호감을 갖는 대상자이어야 배우자로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호감을 갖고 싶은 배려를 갖게될 경우에 어떤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표 II-4 참조)

남녀 모두 성격적인 면에서 가장 배려를 느끼며 가치관의 유사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면에서 배려를 갖는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은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성격의 유지성과 개발성

배우자 선택시에 성격은 중요한 요인이내 성격이 어떠한지 되는지는 논란중이다. 기혼자들이 지적인 성격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표 II-5〉와 같다. 배

〈표 II-1〉 부모의 지지도

문항	성별	남	녀	계	$x^2 = 2.959$ $df=3$ <i>N.S.</i>
매우 반대		11(11.1)	14(8.0)	25(9.1)	
약간 반대		15(15.2)	21(12.0)	36(13.1)	
약간 찬성		43(43.4)	70(40.0)	113(41.2)	
매우 찬성		30(30.3)	70(40.0)	100(36.5)	
계		99(100)	175(100)	274(100)	

〈표 II-2〉 친구의 반응도

문항	성별	남	여	계	$x^2 = 4.505$ $df=3$ <i>N.S.</i>
직극 반대		1(1.0)	5(2.9)	6(2.2)	
약간 반대		2(2.1)	13(7.4)	15(5.5)	
약간 찬성		45(46.9)	74(42.3)	119(43.9)	
직극 찬성		48(50.0)	83(47.4)	131(48.3)	
계		96(100)	175(100)	271(100)	

〈표 II-3〉 초기 감정도(호감)

문항	성별	남	여	계	$x^2 = 18.216^{***}$ $df=3$ $***p < .001$
매우 싫었다		0(0.0)	6(3.4)	6(2.2)	
약간 싫었다		33(3.0)	13(7.4)	16(5.8)	
약간 호감이 있었다		49(49.5)	114(64.8)	163(59.3)	
매우 호감이 있었다		47(47.5)	43(24.4)	90(32.7)	
계		99(100)	176(100)	275(100)	

〈표 II-4〉 매력의 종류

문항	성별	남	여	계	$x^2 = 2.510$ $df=5$ <i>N.S.</i>
신체적		9(9.6)	17(9.8)	26(9.7)	
사회·경제적		6(6.4)	12(6.9)	26(9.7)	
가치관 유사		12(12.8)	34(19.7)	46(17.2)	
성격적		42(44.7)	73(42.2)	115(43.1)	
모두		13(13.8)	19(11.0)	32(12.0)	
기타		12(12.8)	18(10.4)	30(11.2)	
계		94(100)	173(100)	267(100)	

우 다르다가 15.6%, 매우 유사한 경우가 10.9%이고 비슷하다가 46.2% 다르다가 27.3%로 응답했다. 심층적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지만 유사한 경우가 더 많게 지적되었다. 자기개방성은 신뢰관계 형성에 중요하다. 본 조사에 의하면 (표 II-6 참조) 남성과 여성의 개방정도가 다르다 남성이 훨씬 개방적이다. 여성은 약간 개방적인 경우

가 많고 약간 폐쇄적인 경우도 24.0%가 된다. 이는 곧 서로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은 남성측이 강하며 여성은 소극적인 편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방적이어야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성과 사랑

권위중심적 사회에서는 結婚에 있어 성과 사랑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지만 현대의 젊은층에서는 중

〈표 II-5〉 성격의 유사성

분.항	성.별	남	여	계	
배우 다르다		16(16.2)	27(15.3)	43(15.6)	$x^2=1.982$ $df=3$ <i>N.S.</i>
다 르 다		27(27.3)	48(27.3)	75(27.3)	
비.슷.하.다		42(42.4)	85(48.3)	127(46.2)	
배우 비.슷.하.다		14(14.1)	16(9.1)	30(10.9)	
계		99(100)	176(100)	275(100)	

〈표 II-6〉 개 방 성

분.항	성.별	남	여	계	
배우 폐쇄적		3(3.0)	12(7.0)	15(5.6)	$x^2=16.981^{***}$ $df=3$ $***$ $p<.001$
야간 폐쇄적		10(10.1)	41(24.0)	51(18.9)	
야간 개방적		59(59.6)	98(57.3)	157(58.1)	
배우 개방적		27(27.3)	20(11.7)	47(17.4)	
계		99(100)	171(100)	270(100)	

〈표 II-7〉 배우자선택과 사랑

분.항	성.별	남	여	계	
사랑은 필수적이다		65(65.7)	112(65.1)	177(65.3)	$x^2=1.570$ $df=2$ <i>N.S.</i>
사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1.0)	6(3.5)	7(2.6)	
사랑은 결혼해서 두사람이 만들어 갈 수 있다		33(33.3)	54(31.4)	87(32.1)	
계		99(100)	172(100)	271(100)	

〈표 II-8〉 혼전성교에 관한 태도

분.항	성.별	남	여	계	
상대방을 깊이 알 수 있어 필요하다.		8(8.2)	6(3.5)	14(5.2)	$x^2=20.549^{***}$ $df=3$ $***$ $p<.001$
정신적 사랑이 중요하므로 하지 않는게 좋다.		46(47.4)	78(45.9)	124(46.4)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8(8.2)	50(29.4)	58(21.7)	
예정된 있다면 상관없다		35(36.1)	36(21.2)	71(26.6)	
계		97(100)	170(100)	267(100)	

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 보면 〈표 II-7〉, 사랑은 배우자선택에서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5.3%이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2.6%이며 결혼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32.1%로 나타났다. 사랑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사랑의 요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異性으로서 結婚을 생각하게 될 때

性的 사랑(Sexual Love)도 중요하다. 婚前性交에 대한 태도질문 〈표 II-8 참조〉을 통하여 보면 정신적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 하지 않는게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46.4%로 가장 많다. 예정된 있다면 상관없다의 경우 남성은 36.1%, 여성은 21.2%를 차지하고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도 남성은 8.2% 여성은 3.5%로 남성이 훨씬 허용적이다. 절대로 해서는

〈표 II-9〉 신체적 접촉에 따른 배우자 결정도

문항	성별	남	여	계	
상관 없음		10(10.1)	15 (8.7)	25 (9.2)	$\chi^2 = 2.371$ $df = 3$ <i>N.S.</i>
거의 주지 않음		8 (8.1)	17 (9.8)	25 (9.2)	
약간 영향 줌		56(56.6)	84(48.6)	140(51.5)	
결정적 임		25(25.3)	57(32.9)	82(30.1)	
계		99 (100)	173 (100)	272 (100)	

〈표 II-10〉 이상적 배우자의 부합도

문항	성별	남	이	계	
0-45점		7 (7.2)	12 (6.9)	19 (7.0)	$\chi^2 = 14.951^{**}$ $df = 4$ $**p < .01$
46-69점		15(15.5)	45(25.9)	60(22.1)	
70-79점		17(17.5)	37(21.3)	54(19.9)	
80-89점		27(27.8)	57(32.8)	84(31.0)	
90점 이상		31(32.0)	23(13.2)	54(19.9)	
계		97 (100)	174 (100)	271 (100)	

〈표 II-11〉 현재 결혼 만족도

문항	성별	남	여	계	
배우 불만이다		1 (1.0)	4 (2.3)	5 (1.8)	$\chi^2 = 7.933^*$ $df = 3$ $*p < .05$
불만이다		3 (3.1)	7 (4.0)	10 (3.6)	
고통이다		48(49.0)	112(63.6)	160(58.4)	
배우 만족하다		46(46.9)	53(30.1)	99(36.1)	
계		98 (100)	176 (100)	274 (100)	

는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이 29.4%로 압도적이다. 그런데 신체적 접촉에 따른 배우자결정도를 보면 〈표 II-9〉와 같다. 신체적 접촉은 영행을 주되 약간 준다고 한 경우가 51.5%이고 결정적이라고 한 경우가 30.1%이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하는 경우가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婚前 性交에 대한 기혼자에 태도는 68.1%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반면에 애정의 조건이 있을 때는 상관없다가 38.1%로 나타났다.

(5) 이상적인 배우자상과 부합도

이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으로 각별히 행해져야 할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주게 함으로써 정도만을 알아 보았다. 성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32%가 90이상이라고 한 반면에 여성은 80점대에 32.8%, 50-60점대에 25.9%, 70점대에 21.3%, 90점대가 13.2%이다. 남성은 80점대에

27.8%, 70점대에 17.5%, 50-60점대에 15.5%, 45점이하는 7.2% 정도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라고 보는 성도가 낮다. 이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보면 (표 II-11 참조). 여성보다 남성이 만족하게 말하고 있다. 고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족하다가 다음이다.

이상적인 배우자상의 연구는 사례식으로 인성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므로 간단히 실패 보았다.

3. 配偶者選擇 條件의 重要度

전행 연구 및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26개 변인을 설정하여 배우자 선택시에 조건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重要度의 순위를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2점(비교적 중요)까지를 보아 나열해 보면 ① 전장 ② 성격 ③ 사랑 ④ 생활력 ⑤ 가

〈표 III-1〉 배우자선택시 重要도

요인	중요도 전혀 않음(0)	약간중요(1)	비교적중요(2)	매우 중요(3)	빈 도(%)	평 균
나이	26 (9.5)	114(41.5)	110(40.0)	25 (9.1)	275 (100)	1.487
출신 지역	135(49.3)	70(25.5)	56(20.4)	13 (4.7)	274 (100)	0.807
학 령	5 (1.8)	46(16.9)	148(54.4)	73(26.8)	272 (100)	2.063*
수 입	31(11.4)	36(13.2)	127(46.5)	79(28.9)	273 (100)	1.930
재 산	42(15.5)	77(28.4)	118(43.5)	34(12.5)	271 (100)	1.531
외모・용모	8 (2.9)	124(45.1)	120(43.6)	23 (8.4)	275 (100)	1.575
성격・인격	1 (0.4)	9 (3.3)	38(13.8)	227(82.5)	275 (100)	2.785*
가 문	35(12.8)	76(27.8)	114(41.8)	48(17.6)	273 (100)	1.641
직 업	17 (6.2)	42(15.3)	110(40.1)	105(38.3)	274 (100)	2.106*
생 활 력	2 (0.7)	15 (5.5)	72(26.3)	185(67.5)	274 (100)	2.606*
건 강	1 (0.4)	5 (1.8)	30(11.0)	237(86.8)	273 (100)	2.842*
종 교	115(42.0)	94(34.3)	40(14.6)	25 (9.1)	274 (100)	0.909
취미유사성	41(15.2)	112(41.5)	94(34.8)	23 (8.5)	270 (100)	1.367
성 배 성	6 (2.2)	26 (9.5)	88(32.1)	154(56.2)	274 (100)	2.423*
사 랑	4 (1.5)	13 (4.8)	45(16.5)	211(77.3)	273 (100)	2.696*
사주・궁합	135(49.3)	86(31.4)	38(13.9)	15 (5.5)	274 (100)	0.755
순 결 성	11 (4.0)	45(16.5)	82(30.0)	135(49.5)	273 (100)	2.249*
출생순위	132(48.5)	75(27.6)	53(19.5)	12 (4.4)	272 (100)	0.798
첫 인 사	13 (4.7)	76(27.7)	111(40.5)	74(27.0)	274 (100)	1.898
배 립	14 (5.1)	99(36.1)	125(45.6)	36(13.1)	274 (100)	1.668
부모의모심	39(14.6)	86(31.6)	95(35.4)	76(28.4)	268 (100)	1.776
부모의학벌	121(44.2)	101(36.9)	44(16.1)	8 (2.9)	275 (100)	0.777
부모의직업	81(30.1)	107(39.8)	66(24.5)	15 (5.6)	269 (100)	1.056
부모의환경	16 (5.9)	53(19.4)	108(39.6)	96(35.2)	275 (100)	2.040*
심 장 환 경	15 (5.5)	30(10.9)	131(47.8)	98(35.8)	274 (100)	2.139*
가 치 관	2 (0.8)	18 (6.6)	101(37.0)	152(55.7)	725 (100)	2.476*

*는 2점 이상을 표시한 것임.

지관 ⑥ 장배성 ⑦ 순결성 ⑧ 성장환경 ⑨ 직업 ⑩ 허리 ⑪ 부모의 간성의 순위이다.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1점미만인 경우를 보았다. ① 사주・궁합 ② 부모의 학벌 ③ 출생순위 ④ 출신지역 ⑤ 종교의 순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던 건강과 성격은 비혼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기혼자들은 성우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생활력, 장배성, 직업, 허리, 등은 주로 사회 경제적인 안성을 위한 지표로서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랑, 가치관, 순결성 등은 서로의 개인적 영역으로 중요하게 인식된다. 성장환경과 부모의 관심은 개인과 가족의 연대성을 나타내며 그 외의 중요한 요인 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 성격과 더불어 기혼의 주관적인 영역인 사랑 가치관 순결성의 중요성이 배우자 선택 조건에 영향을 준다.

거기에서 사회경제적 안정 지표의 확실함과 부모와 가족의 연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훌륭한 조건의 배우자선택 및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주・궁합은 이제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며 부모의 학벌이나 출신지역, 출생순위, 종교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4.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의견들

(1) 배우자 선택 및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여야 할 요인 하나만을 추천했을 때, 대답한 내용을 간주리면 다음과 같다. ① 성격(116) ② 인간성(43) ③ 사랑(41) ④ 건강(35) ⑤ 생활력(18) ⑥ 가정환경중시(14) ⑦ 장배성(9) 등을 주장했고 그 외에도 경제력, 가문, 심신성, 외모, 종교, 신의와 이해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젊은 세대에게 충고하고 싶은 의견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 ① 성격 또는 인격 됴됨이를 보아야 한다.(60명)
 ②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37명) ③ 가치관이 뚜렷해야 한다. (17명) ④ 현실적 분세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13명), ⑤ 근면 성실하고(10명),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8명), ⑥ 건강해야 한다(8명) ⑦ 자란 환경(6명)과 부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12명) ⑧ 전반적인 것을 다 고쳐야 한다(8명), ⑨ 너무 경제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8명) ⑩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한다(3명) 등으로 배우자 선택 및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내었다.

Ⅶ. 結 論

본 연구는 配偶者 選擇 및 決定에 관련되는 要因과 配偶者 選擇 條件들 중 어떤 조건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기혼자들 중심으로 규명해봄으로써 배우자 선택에 관한 기초자료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인구문제별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선택과 결정에 관련되는 일반 요인들 :

① 부모세대의 배우자선택형태는 대부분 중매혼이었으나 본인들은 자유연애혼이 많았고 중매인애혼의 진흥형이 그 다음으로 실행되었다. 만남의 계기는 친구, 직장동료의 소개가 많았는데 이는 근접성 이론을 지지할 수 있다.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많음을 보아 전자 結婚의 主體는 당사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② 대부분 네이트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별을 하게 될 때는 주로 친구로 사귀었거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졌다.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여성은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기도 하였다.

③ 배우자선택을 위한 결정기간으로서 6개월—1년 이내가 많으며 3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경우도 24.9%이다. 보통 1년정도이면 배우자로 선택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가 결정난다. 약혼기간은 3개월 이내가 49.6%가 된다. 보통 약혼식은 하지 않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약혼식을 할 것을 희망하지만 점차 하지않을 경향이 있다.

④ 시주·궁합은 전통혼례에서는 매우 중요한 배우자선택 조건이었으나 그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시주·궁합을 많이 보

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연령차는 3—4년 차이가 가장 많고, 1—2년 차이가, 5—6년 차이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혼전성관계의 경험여부를 보면 23.6%가 현재 배우자의 경험하였고 76.4%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2) 배우자선택에 관련된 內的 要因들 :

① 배우자 선택 및 결정에 있어서 부모 및 친구의 지지를 받는다.

② 호감과 매력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호감과 함께 깊은 매력을 느끼는 요인은 주로 성격적 매력이 있으며 가치관의 유사성도 중요하며 매력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성격의 자원에서는 극단적인 경우로 만나진 경우보다 비슷하거나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사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방성도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데 배우자로 신택되려면 개방적인 자세를 대부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성과 사랑에서 사랑은 필수식이라고 대부분 응답하였으며, 성식 사랑에서 婚前 性에 대한 태도는 정신적 사랑이 중요하므로 성교는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그러나 애정이 있다면 강간했다는 의견도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견해가 더욱 논란될 수 있다.

⑤ 이상인 배우자상에 대한 부합도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낮게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3) 配偶者 選擇 條件의 重要度에서 중요한 순위를 보면 ① 건강 ② 성격 ③ 사랑 ④ 생활력 ⑤ 가치관 ⑥ 장래성 ⑦ 순결성 ⑧ 성장환경 ⑨ 직업 ⑩ 학력 ⑪ 부모의 관성으로 나타났다. 서의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순위는 ① 사주·궁합 ② 부모의 학벌 ③ 출생순위 ④ 출신지역 ⑤ 종교의 차이로 나타났다.

(4) 배우자 선택 및 결정에 관련된 의견을 보면 역시 ① 성격 ② 인간성 ③ 사랑 ④ 건강 ⑤ 생활력 ⑥ 가정환경 ⑦ 장래성 등을 신커야 한다고 보았다. 젊은 세대에게 충고를 하는 의견에서도 배우자가 되려면, 성격 또는 인간의 뒤뒤이, 사랑, 가치관, 생활력, 성실성 등의 주로 개인적 특성중에서 내면적 요인을 중요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따라서 現代의 配偶者 選擇 및 決定의 形勢은 前 近代적인 韓國 가족에서 要求되고 실행되었다 내용과 형식을 벗어 났으며, 個人中心의 社會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우자선택현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인 是는 배우자선택 및 결정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기초적으로 규명하는 범위 안에서 실행되었다. 후속 人 구를 통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미혼자들의 배우자 선택 및 결정의 性向을 파악해야 한 것이다. 또한 심층식 메카니즘과 요인·부차 등이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課題를 남겨 두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강은숙, 서울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2. 강호천,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김주기방전분내대학생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3. 고순자, 미혼이성의 직업성향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4. 고경자, 여대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17권 2호 1979.
5. 김기열, 대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법학연구, 통권25호, 1976.
6. 김주승, 가족관계학, 서울, 진명문화사, 1981.
7. 김혜선·김영희, 배우자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Ⅰ)—일본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2호, 1983.
8. 문혜숙, 이상적인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9. 박인덕,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12집, 1973.
10. 육호련, 한국 미혼여성의 결혼관, 부산대학교 문리과학 논문집, 제16집, 1977.
11. 유기중, 한국대학생의 결혼관, 최문환박사기념논문집, 1978.
12. 유임주, 한국가족에 있어서 결혼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연구논문집, 1976.
13.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보사, 1985.
14. 윤진, 성인·노년심리학, 서울, 중앙기성출판

- 사, 1985.
15. 이성수, 미혼노동자와 내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16. 이광규, 한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1978.
17. 이상해,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비교연구, 부산대학교논문집, 제18집, 1979.
18. 이효제, 가족과 사회, 서울 진명문화사, 1979.
19. 정련아, 여대생의 자아실현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4.
20. 조규연,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21. 최선덕, 결혼과 가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3.
22. 최충일, 한국 청소년의 혼인가치관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23. 최호원, 혼인의식에 나타난 배우자선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24. 최홍기(여), 가족과 사회, 서울, 삼성문화공고 162, 1982.
25. 한남제, 한국 도시 주민의 결혼관, 여성문제연구, 제3집, 1973.
25. _____,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5.
26. Bernard I. Murstein, "Mate Selection in the 197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2., No.4, 1980.
27. Bert N. Adams, *The Family*, New York,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80.
28. Bob and Margalet Blood, *Marriage*, New York,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8.
29. Bruce K. Eckland, *Theories of Mate Selec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80.
30. Felix M. Berardo, (Ed), *Decade Review: Family Research 1970—1979*, NCFR, Vol.42, No.4, 1980.
31. F. Ivan Nye, *The Famil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3.
32. James M. Henslin,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The

- Free Press, 1980.
33. Wesley R. Burr, etc.(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New York, The Free Press, 1970.
34. Wesley R. Burr and Reubin Hill,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1*, New York, The Free Press, 1979.